

9월 둘째주일 낮 예배 대표기도문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크신 능력을 찬양합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와 잦은 비바람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마침내 풍성한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에 서게 하시니 그 은혜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청명한 하늘과 선선한 바람을 통해 온 자연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주일 아침,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어 세상의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저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흥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을 평신도 주일로 지키며 예배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친히 피 값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목회자뿐만 아니라 저희 모두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존귀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보다는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빛을 잃어버릴 때가 많았고, 부패를 막는 소금이 되기보다는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며 맛을 잃을 때가 많았습니다. 직장에서는 이익을 위해 정직함을 외면했고, 가정에서는 사랑으로 섬기기보다 혈기와 이기심을 앞세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가야 함을 알면서도, 세상의 조롱과 불이익이 두려워 주님의 자녀임을 당당히 드러내지 못했던 저희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평신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9) 하신 말씀을 삶으로 증명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열한 경쟁에 내몰린 직장인들에게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실력과 성품으로 인정받게 하시고,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자영업자들에게는 위기와 시험을 이겨낼 담대함을 주옵소서. 가정을 돌보는 손길들 위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학업에 열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세상의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의 성김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며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가대의 목소리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매주 예배를 위해 굶은일을 마다하지 않는 안내와 주차, 방송실과 주방의 봉사자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기도와 물질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헌신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득 부어주시옵소서.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12) 하신 말씀처럼, 각 지체가 자신의 자리에서 충성할 때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갈등과 분열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개인의 영달이 아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일하게 하시고, 국민들에게는 이기적인 목소리를 낮추고 서로를 이해하며 화합하는 성숙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목사님을 권능의 팔로 붙들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되고, 낙심한 자가 새 힘을 얻으며,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평신도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깨닫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저희의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세상에는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